

# 22년 같은 사이즈 유니폼...혹독한 자기관리

성공 신화를 쓴다  
내가 최고

정 진 희  
아시아나항공 선임 승무원

출발 2시간 전, 항공사 사무실에 모인다. 비행자료를 꼼꼼히 보고, 각종 도구를 챙긴다. 날씨 등 정보를 숙지한 뒤 비행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다. 각각의 승무원은 임무를 부여받고, 브리핑이 끝나면 공항으로 향한다. 출발 1시간 전, 조종사와 승무원이 다시 모여 운항브리핑을 갖고, 출발 30분 전 비행기에 탑승한다.

환한 미소로 고객을 맞은 뒤 비행기가 이륙하면 곧바로 기내서비스를 준비한다. 승무원 공간인 '갤리'(Galley)에서 오븐과 간단한 보일러 등을 이용해 식사를 마련한다.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야 승무원의 식사는 시작된다. 잠깐의 휴식도 있지만 언제라도 고객 응대에 나서기 위해 긴장을 풀지 못한다. 도착 2시간이 남으면 다시 두 번째 식사 서비스에 들어간다.

인천공항을 출발, 미국 LA를 가는 노선에서 일하는 승무원의 하루다. 승무원의 일과는 가혹할 정도로 일이 몰리는 게 다반사. 비행에 나서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동시에 쏟아진다.

22년 경력을 가진 아시아나항공 정진희(45) 선임승무원(차장)은 여기에 기내서비스의 총책임까지 맡고 있다. 승무원 관리와 고객과의 소통까지 관리하는 셈이다.

광주 출신인 정 차장은 항공사에서 가장 경력 높은 현역 승무원. 고객 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아시아나항공의 200여 승무원 특화팀 가운데 일러스트팀을 이끄는 리더다. 지난 2010년에는 동료 승무원 7명과 함께 업무와 여행 이야기가 담긴 '스튜어디스 비밀노트'라는 에세이집을 펴내기도 했다.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승무원 세계에 첫발을 디딘 정 차장의 비행시간은 2만 시간. 833일을 하늘에서 산 셈이다. 비행기의 속도를 시속 700km 단순 계산하면 그녀는 22년 동안 지구를 350바퀴 비행 한 것이 된다.

"승무원은 밖에서 보기와 달리 여성으로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요. 임신과 출산을 위한 유·무급 휴직이 충분하고 출산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권장하는 게 장점이지요."

정 차장은 자신의 장수비결로 ▲여성이 승진과 직책을 부여받을 기회가 많은 직장 분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 ▲적극적인 가족의 도움을 꼽았다. 무엇보다 꾸준한 자기관리를 계속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직업이라는 게 그녀의 말이다. 운동은 기본, 식사 조절은 덤이다.

"날마다 같은 사이즈의 유니폼을 착용하니 조금이라도 체중이 늘면 스스로 금방 알게 되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면류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운동을 위해 가급적 호텔보다는 밖에서 식사를 하고, 귀국하면 시차 극복을 위해 잠을 청하기 보단, 해외에서도 한국 시차에 맞춰 생활해요."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라면 서빙'을 놓고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면서 문제를 일으킨 임원은 사퇴했고, 스튜어디스가 겪는 여러 고초는 새삼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의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정 차장은 여승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냉정하게 답을 했다.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아주 적은 확률로 접하는 일부(?) 고객보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승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는 것이 승무원의 자세"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승무원의 세계는 이해와 아량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직업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각계각층, 각기 다른 여행목적, 남녀노소들이 한 공간에 잠시만 모여있는 건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요. 유명인들도 자주 접하는 것도 좋고요(웃음). 또 해외 방문이 잦기 때문에 조금씩 알게 한가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다 방문지의 현지인과 똑같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지요."

업무 속에서 자신의 꿈을 실천하는 것도 정 차장에겐 최고의 스튜어디스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다. 그녀가 리더를 맡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일러스트팀은 매달 한 차례씩 승객을 대상으로 커리커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을 좋아하는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분위기가마져 즐겁다. 사실 디자이너는 그녀의 꿈이기도 했다.

"대학교를 졸업할 당시만 해도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 않아 승무원에 대해 잘 몰랐어요. 작가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죠. 그런데 승무원이 되고 나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그림으로 승객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니 꿈을 이룬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해요."

정 차장은 일러스트팀 후배 7명과 함께 아예 책까지 내놓았다. 일과 여행, 승무원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스튜어디스 비밀노트'는 승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애독서로 올라서며 정 차장을 잇따라 강단에 올려놓는 계기를 만들었다. 맡고 있는 팀을 더 완벽히 이끌기 위해 디자인 경영 관련 석사과정을 등록하기도 했다. 정 차장은 자부심이 넘치는 목소리로 후배들에게 도전 정신을 일깨웠다.

"오랫동안 안정적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도 없고, 여성이 우위에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전문직을 꿈꾸는 여성이라면 꼭 한번 도전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구 350바퀴...833일 2만시간 하늘에서 살아

면류·기름진 음식·낮잠 피하고 꾸준히 운동

2010년엔 에세이 '스튜어디스 비밀노트' 펴내기도



정진희 승무원이 이끄는 아시아나항공의 고객 특화서비스팀인 '일러스트' 팀원들이 손수 만든 작품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일러스트팀은 매달 한 차례 승객들에게 커리커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

2013 영광 백영동 안보제

천년의빛 영광 Glory Honggwang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23호

6월 12일 ~ 15일 (4일간)

장소 : 전남영광법성포 숲쟁이공원, 법성포뉴타운  
주최 : 사)법성포단오보존회  
문의 : 061)356-4331, 4334

영광군수정기회	부위원장 김봉환	의원 김양문	영광종합병원
영광군의회	의회장 박영순	의원 이종윤	영광기독교신하병원
의장 나승만	자치행정위원장 장기필	영광교육지원청	이사장 김경욱
	산업건설위원장 김필	교육장 김관수	기독병원장 이만재
	의원		병원장 조웅호
			의사 오승균